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Apr. 2016
Vol.4 No.4

- 교회뉴스 • 채플소식
- 제1회 주안에 운동회
- 주안에 만남
- 교육부 / 간증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 LA 213.232.3163 .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집'



플러튼채플 입당감사에배

2013년 5월 8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인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주안에교회는 같은 해 5월 26일 DOWNEY에서 개척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뜻에 합한 HIS-STORY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더 넓은 장소가 허락되어 같은 해 9월 15일 (구)세리토스 하이 스쿨 자리로 이전, 세리토스채플이 세워졌고 다음해인 2014년 6월 1일 천막생활하던 유대인들의 심정을 심분 이해할 수 있었던 학교 건물이 아닌 교회 건물이 이전하여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고하던 성도들의 헌신에 작은 힘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변화에 주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변화를 감당했던 지난 3년의 헌신에 작은 결실

을 맺게 되었다.

2016년 4월 10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며, 각처에서 여러 다른 모양의 삶을 살지만 성령 안에서 같은 감동으로 모인 성도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물리적인 모습인 건물로 세워졌다. 이 자리가 허락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했기에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눅 19:46)" 말씀을 전하신 김인수 목사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건물이 아닌 성전이 되어야 함을 힘있게 전했다. <5면에 계속>



■ EM 영어예배

3개채플 함께 연합예배 “은혜와 활기 넘쳐요”

지난 4월 17일(주일) 오후 3시 LA 채플에서 주안예교회 영어예배가 시작 되었다.

지금까지는 밸리채플, 플러튼채플에서 각각 따로 드리던 영어예배를 3개 채플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안예교회 영어 예배”로 하기로 하고 예배 장소는 3개 채플 중 중간지점에 있는 LA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영어권 대학부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4월 17일 주일에는 대학 1학년부터 40, 50대 영어권 교인까지 43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몇 주 후부터는 희망하는 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 것이고 매월 3째 주에는 한여청년들도 함께 모여 합동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이날 예배는 이명재 전도사와 강술로몬 전도사의 환영의 말씀과 성이삭 전도사의 기도 후 Josh 한 전도사, 이규하 전도사, 김유진 전도사의 인도로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다함께 불렀다.

찬양 후 임훈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8:2-4



말씀을 중심으로 "A Leper's Posture(한 나병환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최혁 담임목사님의 메시지를 영어로 전했는데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에 참석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플러튼채플과 밸리채플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다가 LA채플도 함께하고 또 영어권 성인 교인들도 함께하니 시너지 효과도 있어 예배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은혜로운 열정이 함께한 예배였다.

예배 참석자들의 많은 수가 각 채플에서 사역자나 교사 또는 각 부서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되었다.

앞으로 주안예교회에 속한 영어권 교인들이 더욱 많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하

며 LA지역에 언어 문제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어하던 많은 분들에게 주안예교회 영어예배를 알리고 전도하여 LA지역 청년층의 부흥과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다짐한다.

깨끗함을 입은 한 나병환자가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깨끗케 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많은 LA지역의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하고 다짐한다. | 나형철 기자 |

■ LA채플 이전감사예배

코리아타운 중심서 진리의 말씀이 생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기쁨이 이만كم이었을까?

주안예교회 LA Chapel이 완전하게 제자리를 잡아, 설레임 속에서 4월 첫 주일(4월 3일)에 입당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장소를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던 헌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LA Chapel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손수 집을 꾸려서 옮기고, 정리정돈과 청소까지, 그리고 예배당의 의자조립과 배치 등 모든 일을 직접 감당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첫 예배는 1부예배가 오전 8시 45분 그리고 2부예배는 오전 10시 30분으로, 바뀌어진 시간으로 드러졌지만 혼란이 없이 잘 진행되었으며, 입당 첫 예배부터 새가족부는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권사회를 비롯한 모든 여전도회에서는 정성어린 점심을 준비해서 예배 후에 함께 나누며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는 이날 비유강해인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시간으로 "옥토"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옥토는 고난을 통



해서 기경되어진 밭으로 좋은씨를 삼킨 밭이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켜서 레마의 말씀(씨의 성향인 거룩과 진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남)으로 받아야함을 강조하시면서 새로 이전한 이 지역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으로 인한 복음의 씨앗이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자리잡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주안예교회는 Valley Chapel과 Fullerton Chapel에 이어서 세번째 Chapel인 LA Chapel 사역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인들의 밀집지역을 향한 가슴앓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과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영혼들이 바뀌어진 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를 만날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드나드는 일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성전의 의미는 건물에 있지않고,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비본질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본질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LA Chapel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자랑하면서 아버지께서 물으실 때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만 가득하기를 이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 만남
(플러튼채플)

30여 새가족들 “예배와 말씀이 너무 좋아요!”



4월 3일(주일) 오후 2시반에 플러튼 채플에서는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만남, 주안에 만남이 있었다.

이번 만남에는 모두 서른 한 분의 성도님들이 참가하여 주안에교회의 역사와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 그리고 주안에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등을 알게 된 귀한 시간이 되었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실 때마다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은 기쁨과 감사의 표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주안에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원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게 될 희망에 부풀어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석한 새가족인 안경숙B 집사와 딸 베이레는 이 넓은 미국 땅에 갈 만한 교회가 없어 고민 하던 중, 딸 베이레가 먼저 목요 영성에 배에 은혜 받고 엄마를 졸라 같이 예배에 참



석하게 됐는데 첫 날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목사님과 교회에 신뢰감을 더 얻게 되었다고 감사와 기쁨의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조슈아 조/주디 조 집사는 주안에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

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한 번에 모두 해소 될 수 있었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동안 바랐던 신앙의 길이 일치되는 점에 감동을 받아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 오병순 기자 |

■ 향존직 특별새벽예배
(밸리채플)

회개와 회복 통해 사명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2016년도 주안에 교회 표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선 밸리채플 향존직 직분자들을 위한 특별새벽예배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최혁 담임목사는 첫째 날, 사무엘상 7장 3~4절 말씀을 통해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1)우상과 허물을 제거하고 (2)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3)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설교하였다.

즉, (1)이방신들과 아스다룻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 우상을 그 흔적도 없이 떼어버리고 (2)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뒤로 돌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하



며 (3)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분께만 향하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둘째 날 말씀에서도 우리의 진짜 위기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임을 설교하면서, 인생에 던져진 위기를 성화로 모여 정

결의식을 행한 사무엘처럼,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급박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다.

그리고 이 세상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분임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축복하였다.

2016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밸리채플 향존직 직분자들이 우선 모범을 보임으로 주안에교회 세 개 채플의 모든 성도들도 도전을 받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했던 모든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그 복을 이웃과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 안경숙 기자 |



■ 플러튼채플 입당감사예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로”

〈1면서 계속〉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혁명 당시 많은 성상들이 파괴되고 이성숭배가 봉헌되는 등 반기독교 사상에 모독당했고 공산당은 신을 인간의 창조물로 단정하며 신을 부인하고 수많은 러시아 정교 교회들은 수영장, 도서관 심지어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등 세상과 연합하여 부패하자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고 결국 그 어느때인가는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 일지라도 술집에 마구간이 되어 교회라 불리우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가능한 것이다.

현 세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수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99%의 대중을 움직이는 것은 창조적 소수인 1%임을 인식한다면 바로 그 1%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한다.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길 권면한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일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어렵고 힘들었던 “공사다망” 한 시절을 지나 플러튼채플 입당 감사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어려서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장만한 소박한 내집에 발을 디딜 때처럼 설레었고 낮빛이 상기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김인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 또다른 열정을 가슴에 품

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건물이 어떤 가치를 띄고 있는지, 호프집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의 수많은 성당과 교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에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플러튼채플 성도들 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먼길을 마다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모인 LA채플 성도들과 밸리채플 성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플러튼 채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함께 그려나갔다. 세상을 변화시킬 1%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을 이루어 가길 소망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요일 3:18)”

| 채은영 기자 |

■ 어? 성경이 읽히지네!(플러튼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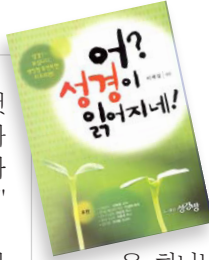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시 27:4)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소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 바로 '어? 성경이 읽히지네!'를 통한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펴면 스크르~ 깊은 수면으로 빠져드시나요? 여기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해서 좌르르~ 꿰뚫어 읽고 싶으시면, 일초의 지루함도 없이 빨리 들어가며, 그 동안 막혀 있던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생장점이 터져 나가듯이' 열리고 답이 뚝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시간의 순서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영안이 열려서 기쁨을 체험하며, 방향성과 정체성이 잡혀갈 때 아주 미세한 성경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권상복 집사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아하자!" 우리가 성경방에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의문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배웠습니다.

성경방 첫 시간에 감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감사님께서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잘 아시게 되실 거예요" 하시면서 '생장점'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에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꿰어서 보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제 목에 걸어주시는 느낌의 성경공부였습니다. 저도 이런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성도 이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세세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배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사를 다시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이라 하는 것일요.

훌륭하신 감사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장점'이라는 단어가 궁금하시면, 다음번 "어? 성경이 읽히지네!" 성경방 공부에 들어오시기를 권합니다.



원순빈 권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신약성경방 일정

- 시작: 8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플러튼채플 교육관 ICY Room
- 강사/문의: 박상숙 권사(714-600-7361)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또 그만큼 많은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주안에 교회에 와서도 여러 성경공부들을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교회에서 '어? 성경이 읽히지네! 공부'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마치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은 터라 선포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구약 성경공부로 12주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배우고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소감은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기대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는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졸음이 쉽게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성경의 맥을 짚어주어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의 배경, 역사, 지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나라와 민족들의 이해관계, 구약 39권의 분류와 배열, 그리고 시대적인 순서 등을 공부하며 성경을 함께 읽으니, 어렵고 골치 아픈 성경이 너무나 쉽게 풀어졌습니다. 정말 성경공부의 제목대로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싶어지는 성경... 목사님 설교도 더 잘 들려요



니다.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싶어지기 시작했고, 또 읽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안교회만의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고요? 바로 감사분이 해박한 성경에 관한 역사와 지리,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깊은 영성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강한 힘과 감칠맛이 넘쳐 흘러나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취하여 상상의 세계로 날아가는 동심'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집에 와서 관련 책자와 주석 책까지도 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공부들 가운데 이 시간처럼 성경공부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대도 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어? 성경이 읽히지네!'를 꼭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내용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마치니 두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지니 읽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경이 이해가 되니 성경이 술술 읽히기 시작했고 텅으로 목사님의 말씀도 더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어? 성경이 읽히지네!' 꼭 도전하세요. 공부를 마치면 저처럼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근희 집사

■ 7교구(플러튼채플)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항상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이영진/명선 교구장과 4명의 구역장으로 이루어진 플러튼채플 7교구는 “기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정직한 신부”를 교구 표어로 1구역장에 박만규/김비옥 집사, 2구역장에 박영만/정희 집사, 3구역장에 황중훈/정소연 집사 그리고 1구역에서 분가한 4구역장에 안장호/이경희A 집사가 섬기고 있다.

총 24가정 47명의 대가족으로 성가대, 미디어국, 봉사국, 기도국, 주차국, 찬양팀, 교육국 등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대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믿음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1구역은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 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 가식 없이 친근하고 활발하게 교제하는 구역으로 모든 모임에 열정적으로 100% 출석을 하고 있다. 2구역과 3구역은 30대부터 40대 초반의 젊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식구들이 각 사역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어



른들 만큼 많은 어린이들도 참석하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구역예배에 참여하는 습관과 추억을 몸소 체험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구역장님들의 깊은 관심과 구역식구들의 친근함으로 어떤 새 식구도 빠르게 가족같이 느끼게 하는 탁월함을 보여주는 구역이다. 4구역은 금년에 1구역에서 분가한 새내기 구역이지만 구역장의 대단한 열정으로 필요할 때는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여 삶을 나누며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등 형제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다.

플러튼 7교구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관계 중심적으로 모두 다같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고 또 모임 때마다 나의 가진 것, 성취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힘을 주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을 자랑한다. 따라서 구역 예배시 교구 스스로 료를 정하여 서로를 위한 배려와 하나님께 집중토록 독려하므로 플러튼채플 교구 중에 가장 참여도가 높은 교구임을 자부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뿌듯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이영진 교구장은 7교구 식구 모두가 올 한해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열 걸음 다가오시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6월달에는 교구전체 야유회와 12월에는 연말 전체교구모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계획임을 알렸다. | 이광영 기자 |

■ 14교구(밸리채플)

"100% 출석 열정 넘쳐요"

이방걸 장로/이혜령 권사가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밸리채플 14교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교구”라는 표어를 가지고 1구역장에 김은아집사, 부구역장으로는 박희정 집사, 그리고 2구역장에 이성근/이사라 집사가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있다.

교구원들의 사는 곳이 밸리는 물론 LA, Arcadia 등 광범위 하지만, 매우 활동적인 젊은이들이 많은 교구로서, 최우선적으로 모임에 힘쓰기로 구역예배는 물론 교회의 어떤 부르심에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100% 출석을 실천하고 있다. 그 비결을 묻자, 우선 구역예배의 경우 1, 2구역이 시간을 달리해 모이고 또 모든 구역예배에 교구장님 부부께서 항상 참석하시고 몸소 매사에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귀뜸한다.

1구역장으로 섬기는 김은아 집사는 식당이나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각 가정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리니 더욱 열심히 모이고 또 구역예배도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느꼈다며 모든 구역원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구역예배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서 드리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5명



이던 구역식구가 지금은 13명으로 늘어나 한사람 한사람을 모두 신경쓰지 못해 미안할 때도 있지만 늘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순종하는 구역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에는 같이 중보기도하던 중 구역원이신 박혜경 집사의 시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모든 구역원들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고, 또 학원을 운영 중인 박경원 집사도 포터랜치 개스누출 문제로 많은 학원생들이 떠나 학원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간증했다.

2구역은 이성근/이사라 집사 부부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구역예배 역시 각 구역원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다. 모든 구역원들이 구역예배에 빠짐없이 100% 출석하고 있고, 또 보통 오후 3시에 모임면 7시쯤 되어야 구역예배가 끝이 나는데 때로는 9시 넘어까지 은혜 나누기를 하기도 한다.

2구역의 특징을 묻자, 처음부터 카톡방을 개설하고 매일 아침 말씀, 기도, 찬송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모든 구역원이 열정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14교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적용, 실천하는 식구들이며 서로 보듬어 주고 위로하며 하루하루 성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힘쓸뿐만 아니라 새가족부, 기도국, 교육부, 예배국 등에서 충성스레 봉사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라고 한다.

앞으로 밸리채플 14교구가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열정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구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다시 카메라에 담을 날을 기대해 본다. | 오병순 기자 |

교사의 글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쫓 다니면서 주변에 사역하던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작은 교회에서 한글학교 TA를 잠깐이나마 해보았는데요. 당시에는 친구들이 하나까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후 대학 생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회를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주안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Junior(11학년)때 입니다.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끌려 나왔는데, 그래도 끌려 나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2년동안 저의 믿음은 확실히 자라났고 또 최혁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동부에서 도움

저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으로 헌신했었습니다. 3년쯤 마음 속에서 다시 처음 주님을 믿은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열망과 함께 주안교회로 옮겨 새로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이전 신앙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단지 이름뿐인 종교인의 신앙이었다고 성령께서 철저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

저희 가정은 작년 5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안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20년간 섬겨왔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려니 웬지 낯설기도 하고, 설레이면서도 서먹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년 가을에 드디어 새신자반을 졸업하면서 이곳 주안교회에서 어떻게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또한 교회의 어느부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될지를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세 아이들이 속한 IC KIDZ 교육부에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도울일이 있으면 학부모로서 열심히 참석해 봉사하겠다고 니콜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교회에 새로 입교한지 얼마 안되었기에, 한동안은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

가르치기 보다는
제가 더 배워요



한재호 (플러튼채플)

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사역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머뭇거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잠시나마 TA를 했던 경험을 하나님은 역시 배로 늘려 사용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시작한 사역이지만 날이 갈수록 오히려 제가 더 배워가는게 많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배워가고 또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들으면서 몰랐던 것도 배워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저를 보시고 또 은혜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교회도 빠지지 않게 되고 변화되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친구들에게도 보였는지 친구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저의 발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제가 자라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어린 영혼 돌보길



최보경 (LA채플)

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고백, 회개가, 십자가의 진리가 그 순간 머리에서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과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영적인 문동병자였고 이런 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그저 단순한 이름뿐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불드시고 현재까지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육부에서 섬기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삶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귀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리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섬겨 다음세대, 더 크게 쓰여질 믿음의 후대들이 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데 미약하나마 제 자신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승필 (벨리채플)

고, 뒷전에서 조용히 편하게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연말에, 교육부의 스태프로 섬겨달라고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오시던 니콜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고, 4-5학년 남자반 선생님께서 다음달에 종교등부로 옮겨 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아직 후임 선생님이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채워줄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제가 말아서 해보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긴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듯한 따뜻한 감동이 있었고, 몇 주 후에 저를 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섬기게 되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다보니, 아직 얼굴이 익숙지 않아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 한달간은 어떻게 봉사하며 보냈는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학년 남자아이반을 맡아서인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산만하고 tough 하게 느껴졌습니다.

(9면에 계속)

주안에삶을 공부하며...

내 삶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2절)

이번 주안에삶을 공부하면서 나를 발견한 것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토론하면서 나의 말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그 말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나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답아갈 대상이신 예수님은 있지만 나의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삶의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너무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동떨어진 대상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 분이 삶의 기준이 되고 분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써 반복, 연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믿음의 삶도 중요하다고 이번에 다시 배우고 다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자의 의식적인 생활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서야 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듭나야 하겠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관이 반드시 믿음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는 제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선택합니다.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안에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진호 장로
(벨리채플 주삼 1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은혜

시작한지 바로 엿그제 같은데 어느덧 6주간의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백하자면, 처음에 주삶에 참가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갑자기 나의 마음에 부담이 오고, 등록한 것을 취소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것이 곧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하는 나를 가로막는 영적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솔직할 수 있는 당당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안에삶을 하는동안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전율을 새삼 느끼면서, 말로만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인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을 가진 주님의 진솔한 자녀로 내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이 세상에서도 또 주님의 자녀로서도 새로운 부활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삶에서 공부하고 나누었던 여러가지 중, 세상을 이기는 법, 사단을 이기는 법 등,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로고스인 말씀을 내 안에 살아서 숨쉬는 레마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일깨워주신 성령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주동안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와 나눔으로써 주안에교회 가족으로 더욱 정감을 느끼게 된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내 마음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또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음의 열정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잘 인도해주신 인도자님에게도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주안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언제나 진실되게 우리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레이스 인숙 정 집사
(플러튼채플 주삼 2권)

〈8면서 계속〉 열심으로 준비해온 성경공부 내용을 나누기가 힘들 정도로 집중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학생부 교사로 섬기겠다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던게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너무도 신실하게 함께 섬겨주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모습들이 제게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책망을 하시는듯한 마음이 들어, 그때마다 회개하며 맡겨진 이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주간 조금 얕전해진? 아이들의 태도를 성경공부시간에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조금 친해져서인지 먼저 다가와 인사하는 몇몇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심으로 씨를 뿌리며 맡은 위치에서 수고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안에교회 세 곳 채플의 교육부에서 맺혀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여 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한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사들이 주일 한 시간 동안에 보여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사실 너무도 미약합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 평신도 칼럼

주안에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

교회는 하늘나라 모형으로서 하나님으로 부터 사명을 부여 받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주안에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벨리와 플러튼, 그리고 LA에 기적처럼 성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안에교회는 최혁 담임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 1.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2.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3.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젊은 세대를 깨워 영적부흥을 위한 통로로 세우는 교회 4.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 하는 교회 등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는 표어를 가지고, 모든 교인이 기도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도 서로 부딪치고 도전받으며 형제사랑을 배우고 성숙한 자녀가 되어 아름다운 가정에 구성원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 승리자가 되듯이, 우리 주안에 세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흥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최혁 담임목사님은 세군데 채플을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에는 하루에 세군데 채플을 이동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이동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일날 각 채플별로 한번은 영상으로, 한번은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목사님의 수고와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예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시간을 맞추어 예배시간을 조절하여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예배, 구역 발표회, 성경 암송대회, 야유회, 운동회 등 교회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형제간에 서로 교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5월 달에는 전교인 운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창립 이래 처음 모이

는 주안에교회 최대 축제인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서로 몰랐던 형제를 더욱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형제들을 통해 배우듯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주안에교회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듯이,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세계의 많은 목자들이 '주안에교회'를 예를 들며 설교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최혁 담임목사님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뛰고 달리는 주안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 합니다.



김신실 권사
(벨리채플)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 차 • 매 매 • 리 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크리스찬 신물센터 기독교 종합백화점

성화, 성구책가,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개운, Tape, CD

대표 강 병 찬

TEL: (323)737-7699, (323)737-4526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인터넷 쇼핑몰 : www.koramdeo.com
E-mail : cbc0191@hotmail.com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AYCE GOGI

KOREAN BBQ

〈구 덕수장〉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 코람데오 테마여행 "광야#1"

자연·하나님·친구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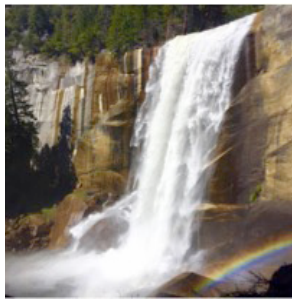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는 1박 2일 여행이고,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설레임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당일 아침에 모여서 모두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고 교회 차에 올랐습니다.

요세미티까지 6시간, 광활한 평야에서 산으로 풍경이 변하고, 종종 눈이 녹아서 만든 폭포도 보이고 곧게 뻗은 울창한 나무와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요세미티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네바다폴(Nevada Fall)을 향하여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입구에서부터 청솔모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사람이 익숙한지 정말 바로 앞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도 그냥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르는 산길은 힘겨웠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저는 힘을 내며 올라갔



고, 조금 오르
고 멋진 자연
에 감탄하고
또 다시 오르
고 다시 감탄
하고, 모든 장
면을 담아가
고 싶었습니
다. 햇빛은 비
추지만 아주



덥기보다는 그들은 시원하고, 햇빛이 따뜻한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네바다폴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겨우내 왔던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이 모여서 산에서 내려오며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고 그 바위에 부딪치며 만들어내는 물방울들이 햇빛에 쌍무지개를 만들면서 정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눈이 많이 녹아서 위에서 물이 많이 흐르는 길을 걸어 내려왔는데 그곳이 살짝 언 곳도 있어서 조금 위험했지만 큰 사고 없이 다들 서로 도와가면서 내려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하이킹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자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우며 오른 친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첫날 10마일을 걸으며 다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가 멋진 자연을 느끼고 또 이 하이킹을 해내어서 다른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킹스캐년내셔널파크(Kings Canyon National Park)를 향하여 가서 정말 큰 나무들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며 고개를 계속 나무를 우러러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천 년을 넘는 세월을 지낸 나무를 보며 정말 다시금 입이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로락(Morro Rock)을 오르며 길이 좁고 바로 옆이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야 해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모로락의 맨 위 주변이 탁 트인 곳에서 아직 눈에 덮인 산들을 보며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이번 광야 여행을 통해 몸은 오랜만에 하이킹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넓고 높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친구들을 서로 더 알아가고 챙기면서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을 준비하고 운전과 가이드로 우리를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신 한대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2" 여행에서 다시 함께해요!
| 김현태 성도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조리방법이 쉽고 열량이 낮으나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이 많아 더운 여름에 적절한 요리라 생각된다.

재료 (4인분)

이탈리안 샐러드 드레싱 ¼ 컵, 발사믹 식초(balsamic vinegar) 2큰술(table spoons), 꿀 1큰술(table spoon), 고춧가루 1/8 작은술(tea spoon), 올리브유 2큰술(table spoons), 닭고기 가슴살(chicken breast tenderloins) 1파운드, 가늘게 채썬 당근 1컵, 아스파라거스(2인치 길이로 자른) 10온스, 작은 토마토 1개(씨를 빼고 잘게 썰어 준비한다)

조리법

1. 작은 용기에 샐러드 드레싱, 발사믹 식초, 꿀과 고춧가루를 잘 섞어 양념장을 준비한다.

Balsamic Chicken and Vegetables

야채를 곁들인 새콤한 닭고기 요리

2. 큰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넣어 중간 불에 기름이 뜨거워지면 닭고기를 넣고 고기가 부드럽고 분홍색이 없어 질 때까지 한 번 뒤집어 5-6분간 익힌다.

3. 위의 닭고기에 준비한 1번의 양념장의 ½을 바른 후 준비한



큰 접시에 옮겨 두껍을 덮어 보온이 되도록 한다.

4. 닭고기를 조리한 후라이팬에



아스파라거스와 당근을 넣고 3-4분동안 중간 불에 볶은 후 닭고기와 함께 준비한 큰접시에 옮겨 담는다.



5. 나머지 양념을 같은 후라이팬에 넣고 1분간 중간 불에 잘 저으며 익혀 접시의 닭고기와 볶은 야채에 예쁘게 부어 상에 올린다.

박창신 기자

■ 5월 28일 3개 채플 연할

‘다 모여라, 뛰자, 하나되자’ 주안에 운동회



- 언제? 5월 28일(토) 오전 9시
- 어디서? Pasadena Brookside Park
(360 N. Arroyo Blvd, Pasadena, CA 91103)
- 문의: 이방걸/ 정도영 장로



이제 약 한 달 후인 5월 28일(토요일) 오전 9시에 주안예교회 세 개 채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동산, Pasadena Brookside Park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즐거운 운동과 재밌는 게임과 웃음 넘치는 퀴즈와 맛있고 풍성한 음식,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푸짐한 상품까지...

유년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이날이 지나면 우리의 인사는 이렇게 변하겠죠... “What’s your name?”에서 “반가워요 OO집사님(권사님, 장로님!)”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설치되고, 여러 팀의 performance 도 선보이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재밌고 즐거운 모임이 될, 2016 주안예교회 운동회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들도 다 함께 모시고 오세요! 안 오시면 1년 내내, 아니 평생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연로하시거나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각 채플별로 차량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 알림: 이달 지면사정으로 주안예성경퍼즐 실지 못했습니다. 2월호 당첨자와 정답, 새 문제는 5월호에 게재하겠습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15, 2부 11:45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5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7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성, 김다솔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